

아버님의 영전에 바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죽은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향해 간단없이 굽이쳐오는 물결 같은 것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살아 있는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버님은 한국 경제의 자갈밭을 일구어내신 살아 계신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지 30주기가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의 일이니 벌써 먼 옛날이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버님의 일대기를 엮다 보니 생전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 평전은 아버님의 과거 행적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울림은 큰 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단순한 아버님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살아 있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이전의 이야기가 현재의 우리들 가슴에 새로운 '열정'의 불씨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30년이나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금 평전으로 엮어내는 일에 대하여, 저는 그 필연성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아버님의 30주기를 기리기 위한 책이라면 애초부터 기획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을 거듭하며 우려하고 망설였던 것은 과연 아버님의 평전이 이 시대의 젊은 이들에게 얼마만큼의 필요한 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아버님의 평전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왕에 평전을 만든다면 단순히 아버님을 기리는 데 그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오늘날 SK의 전신인 선경(鮮京)을 창업하셨고, 회사를 발전의 본

궤도에 올려놓으신 후 안타깝게도 48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음 잣더미 속에서 공장을 일으켜 세우신 아버님은 매우 열정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한국 경제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가슴 속의 열정을 다 태우시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인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아버님의 평전을 만들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뜻과 태운 열정을 글로 담아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 삼아 들려줄 수 있는 책, 그래서 그 열정이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가슴에서 새로 운 불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전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로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30년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아버님의 정신이 담긴 이 평전에서 따뜻한 체온과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평전 속에 정신으로서의 아버님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이 평전 속에서 살아 있는 목소리로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열정적으로 살아라!”

저는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기를 희망합니다. SK 임직원들에게는 기업의 정신과 정체성을 느끼게 해 주고, 각박한 이 세상의 모든 분들에게는 진정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님의 평전을 만들어 드릴 분은 장자인 최윤원, 즉 저의 형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님은 몇 년 전에 아버님의 곁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제가 그 일을 맡아 송구스럽기 그지없을 따름입니다.

형님을 대신하여 불초소생 최신원, 아버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칩니다.

2003년 11월

최신원

SK의 미래를 위한 등대가 되기를

올 해는 SK 창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창업자이신 최종건 회장께서 영면하신 지 3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니, 이 평전의 출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종건 회장께서는 선경을 창업하여 20세 '약관(弱冠)'의 청년 기업을 만들어 놓고 타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오늘날 SK는 50세 '지천명(知天命)'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최종건 회장의 고동치는 숨결이 녹아 있습니다. 그 숨결은 멈추지 않고 30년 동안 끊임없이 거센 파고로 물결쳐 오면서 오늘의 SK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굽이쳐 전 임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건 회장은 30년 전에 타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의 또 다른 정신으로 살아서,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의 고동소리로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하지만, 그 고동소리가 이 평전 속에 강한 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최종건 회장의 일화를 중심으로 엮으면서 그 속에서 성공 철학을 뽑아내어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가 이룩한 눈부신 성장이나 앞으로 발전해 나갈 미래 비전 역시 이 책이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SK 전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미래의 항해를 인도하는 등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SK네트웍스 대표이사

사장 정만원

잿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쇳조각 하나의 희망

SK의 모든 임직원들에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SK의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3년 4월,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선경직물의 공장 앞에 건장한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전쟁 전 선경직물 공장은 청년의 모든 꿈이 깃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청년의 모든 꿈이 잿더미가 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잿더미 속 그 어디에도 희망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잿더미 속으로 혼자서 삽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청년은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밝은 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을 향한 뜨거운 가슴의 포기할 수 없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그 뜨거운 열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염되었습니다. 혼자서 잿더미 속을 파헤치는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모래를 펴서 새로 벽돌을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돌과 자갈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생기고, 목수가 생기고, 미장공이 생기고, 용접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뼈대가 세워지고, 공장의 벽이 세워지고, 불에 타 버린 부품들을 폐고, 잊고, 때워서 2개월 만에 네 대의 직기가 조립되었습니다. 그것은 꿈의 힘이었고, 희망의 힘이었고, 그것들을 향한 열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속을 꿈과 희망의 삽으로 파헤쳐 만들어 낸 그 네 대의 직기는 결국 오늘날의 SK 신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종건 평전〉은 잿더미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린 바로 그 청년, SK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꿈과 희망을 향한 열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꿈의 기반을 잃어버린 한 청년 창업자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네 대의 직기에서 국내 최고의 석유회사를 탄생시키기까지의 도전과 역경, 그리고 고난의 역사이자, 그 모든 것을 헤쳐 나온 한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신념에 관한 기록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정글의 논리는 이미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현실 속에서, 잣더미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고 그 희망을 위해 전 생애를 피와 땀으로 뜨겁게 불살랐던 최종건 회장의 삶은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SK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뚝한 사표(師表)이자, 정신의 뿌리로서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큰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종건 회장의 꿈을 향한 열정이 〈최종건 평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SK그룹 전 임직원들에게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SK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홍지호

멈추지 않았던 삶, 멈추지 않는 신화

쉬] 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그 앞에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상징인 한강의 그 도도한 흐름이 유구한 역사와 함께 쉬지 않고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한결 같은 역사의 한강을 보면서 그 한강과 무척이나 닮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종건 평전〉이라는 책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 SK 창업자 최종건 회장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기슭의 보잘것없는 작은 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작은 내를 이루고, 그 작은 내들은 굽이치고, 부서지며 다른 내들과 다시 합류하여 더 큰 물줄기가 되고, 그 큰 물줄기는 또 다른 물줄기들과 만나 거대한 물결의 한강이 되어 원대한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도 그 한강과 같이 처음에는 오직 한 사람, 최종건 회장의 뜨거운 열정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고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건 회장은 마치 멈추지 않는 물줄기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그 흐름을 멈추고 고이면 썩게 되듯이 최종건 회장은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오직 미래만을 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눈앞에 거대한 봄짓으로 흐르는 한강을 보면 그 한강이 깊은 산골의 작은 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건 평전〉이라는 책에서는 그러한 한강과 같은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뵈었던 최종건 회장님은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973년 본인이 입사하여 어렵잖이나마 기억되는 그분은 카리스마가 돋보이고 한번 계획한 것은 어느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 결과와 연결시키려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삶을 살다 가셨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치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최종건 회장의 열정적 삶이 〈최종건 평전〉을 통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저 한강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 깊이 흐르기를 기대합니다.

워커힐 대표이사

사장 한종무